

EU,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의무비율 초과 달성 및 합성항공유 생산기반 확대

해당국가	EU	기관(기업)	유럽항공안전청(EASA)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항공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유럽항공안전청(EASA)은 '26년 9월 EU 공항의 지속가능항공유(SAF) 공급 비중이 '25년 2.8%를 기록하여 의무 공급비율 2%를 초과했다고 발표

-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ReFuelEU 항공 규정에 따라 '25년부터 SAF 최소 공급비율 2%를 적용하고 첫 의무 이행연도의 공급실적과 감축효과를 분석
 - '25년 EU 공항에 공급된 전체 항공유 약 3,930만 톤 중 SAF가 약 110만 톤을 차지하여 의무비율을 0.8% 초과 달성하고 전년 대비 공급량 약 5.7배 증가
 - SAF 공급 공항이 '24년 33개에서 '25년 121개로 확대되었으며, 일반 항공유 대체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약 377만 톤으로 추산
- EU 역내 SAF 생산과 공급망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료의 해외 조달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확인
 - EU 공항에 공급된 SAF의 약 86%가 역내 생산 제품인 반면 원료의 약 85%는 역외에서 조달되어 원료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 확인
 - 폐식용유가 SAF 생산 원료의 약 80%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특정 원료에 집중된 공급 구조와 향후 생산 확대에 따른 원료 확보 과제 부각

□ EU는 '30년 SAF 의무비율 6% 달성을 위한 생산능력 확충을 추진하고 합성항공유(eSAF)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을 통해 연료 공급기반 다변화

- '25년 SAF 공급비율 2.8%를 기준으로 '30년 의무비율 6% 달성에 필요한 생산능력과 공급 여건을 평가하고 역내 생산시설 확충 필요성 검토
 - '30년 혼합 의무비율이 '25년 실적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생산시설 투자와 원료 조달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필요
 - EU 역내 SAF 생산능력이 현행 확충계획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, 향후 투자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가 공급목표 달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
- 전력 기반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합성항공유(eSAF) 생산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항공연료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
 - EU 내 첫 합성항공유 실증시설 구축과 약 50개 관련 사업의 투자 검토가 진행되는 등 합성항공유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화 준비 추진
 - 회원국별 합성항공유 생산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바이오 원료 중심의 SAF 공급구조를 보완하고 중장기 항공 부문 탈탄소화 기반 강화

※ 출처 : 유럽항공안전청(2026.09.17), EU sustainable aviation fuel supply exceeds 2025 ReFuelEU Aviation target